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홍보

진안군, 농업 경쟁력 강화·취약계층 보호·군민 생활 안전망 확충 집중

진안군은 2026년을 맞아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고,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6년 신규 시행되거나 확대·개신되는 제도는 농업·축산, 보건·복지, 경제·생활, 교통·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군민 생활 안전망 확충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추진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고품질(내병계) 고추종자 보급사업을 신규 도입해 병해에 강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수박 강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신규 및 확대 재배 농가의 초기 영농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확대 병행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대상 연령 확대와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기존 복지 정책도 지속 확대 운영된다.

이와 함께 2026년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와 더불어 용담호 사진문화관,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성수·용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도 순차적으로 개관·운영될 예정임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내용이 많은 만큼, 군민들이 변화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진안군,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읍·면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협의회, 진안군 공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참여 희망 기업 30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2026년 무주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주군 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무주군 소재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jwan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1명이며,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현황에 따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채용 대상 청년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취업 자여야 한다.

다만 무주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도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정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 팀장은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준비 박차

진안군은 오는 3월 14일에서 15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일원에서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남귀현 축제위원장 및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22회를 맞는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축제는 운장산 고로쇠 수액의 우수한 품질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을 기반으로 '생태건강차유도시' 진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콘텐츠 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제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단순한 관람을 넘어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전통 방식의 고로쇠 채취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



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 축제'로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일암반일암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진안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축제의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 개소식. 왼쪽부터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김상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임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정책과장, 황인홍 무주군수, 이병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4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 개소식·현판 제막식 열려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 국내외 태권도 단체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교류와 협력, 연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3일 태권도원에서는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김상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임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정책과장, 황인홍 무주군수, 이병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4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가리며 태권도원이 아시아 태권도 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에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아시아태권도연맹과 코리아(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이 태권도원에 입주해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의 활용도 증대와 아시아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국가유산청, 태권도진흥재단, 국내외 태권도 단체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협의와 대응 등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원에서는 국기원 사범연수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 세미나,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아시아태권도연맹 등의 합류를 통해 태권도원이 가지는 성지로서의 상징성과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9월 개최 예정인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태권도그랑프리시리즈, 세계파라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국가협회 품새 심판 워크숍, 공적개발 원조(ODA)를 통한 태권도 해외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국내외 태권도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해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가 균형발전 실현 강력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상생 축제'로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일암반일암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진안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축제의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운일암반일암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진안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축제의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동창욱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의 삶의 터전이 희생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처럼, 지역 주민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산업 정책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의장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시설 건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 지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회장 김숙자)는 지난 22일 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장수지구협의회 임원과 봉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과 봉사원 서약을 시작으로 기념사, 우수 봉사원 표창 및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봉사 현장에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 보고와 주요 봉사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봉사원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건설기계연합회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건설기계연합회(회장 라영호)는 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생계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

라영호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단체로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소외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